

다 숨 사랑

2011년 6월 3일



학교장 인사말씀

2010-2011학년도에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일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있는 1년을 보내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일로 수업일을 바꾼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적응을 잘하고 정규학교의 수업 후에 학교에 등교하는 데도 열심을 다해 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각 1년의 목표를 정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1년이 되고자 했습니다. 올해 첫 다숨 사랑을 보면 학생들이 작성한 1년 목표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1년 목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며 재미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저의 목표는 90% 이상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고 학생들이 즐거워했으며 한국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한글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에 큰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설 잔치 및 역사문화 골든벨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그리고 함께 자신들이 배운 바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개교 7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역량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개발하고 창조한 내용으로 기념식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와 함께하는 말하기대회와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들어가지만 선생님들은 여름 동안에도 새학기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한국을 찾아라> 역사문화 교재에 이어 <한국을 알자>를 출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 다숨의 3분 선생님들이 저자와 편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생님들

편찬된 책을 열심히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2000년에 이어 재미한국학교협의회(본교의 소속 단체)의 연례 학술대회가 오는 7월 14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숨의 선생님들은 모두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을 섬기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학교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1세와 2세 중심에서 3, 4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태인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도 앞으로 1세대 후의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가르치거나 가정교사를 통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학교의 목표는 한글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전 인격적인 성장과 재미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특징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한국학교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9월까지 한국학교를 떠나 있을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된 휴가를 보내고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름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한인 학생 중에서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알려져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랑스러운 재미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사회 어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숨 사랑
Vol. 7, No. 3 (제28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역은이: 교사 임강주

이번호 목차

학교장 인사말씀	1
다숨의 특별한 활동 시간	2
다숨편지	6
백일장 수상 작품	10
보조교사 소개	11
다숨 한국학교연혁	12
다숨 학사보고 및 행사안내	13



다솜의 특별한 활동시간



한국무용반

교사 이연주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전통 무용을 지도한 이연주입니다. 수업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던 아이들과 함께 한지 벌써 1년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무용 수업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무용반은 1학년부터 5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용 작품으로는 한국 전통 무용의 꽃인 부채춤으로 선정하였고 기본 장구 장단도 배웠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커다란 부채를 잡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한편으로는 한국무용의 음악과 춤사위 동작이 느리고 어려워서 어린 학생들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고학년 학생들이 어린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 특히, 원은경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무용작품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춤 작품 이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 장단인 굿거리장단과 설장구장단을 지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장구를 배울 때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무용을 통해서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너무 기쁘며,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무용반 친구들 너무 수고가 많았고 특히 원은경 선생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용시간은 정말 재미있어요....

배정은: 무용반은 아주 재미있어요. 파도도 만들고 꽃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랑 실 때 노는 게 재미있어요. 무용반은 아주 좋은 특별활동반입니다.

윤하나: 이번 가을과 봄학기에 한 반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번에는 부채춤을 배웠어요. 파도도 배우고 꽃도 만들고 아주 재미있는 반이었어요. 6월 3일에 발표하는 게 기대돼요. 내년에는 요리반을 해 보고 싶지만, 무용반에서 배운 건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예요.

이아린: 나는 특활반에서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무용반에 제일 처음 갔었을 때 나는 부채를 가지고 부채 피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왼손이랑 오른손으로 해 봤어요. 3번이나 부채가 손에서 떨어졌는데도 나는 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었어요. 특활반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했어요.

양희선: 무용반에서는 부채로 춤을 춰요. 재미있지만 무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채를 잘 들고 춤을 잘 추어야 해요. 저는 작년에 했으므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연습하면 더

잘하고 더 멋져요. 제가 처음으로 무용 연습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무용반에 있는 언니들이 너무 잘 하더라구요.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많이 연습하니깐 잘 되더라구요. 무용 발표회를 할 때 잘 됐어요. 엄마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장선진: 특별활동은 새로운 경험이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무용을 배울 수 있어서 더 특별하다. 우리 무용반에서는 부채춤을 배운다. 내가 좋아하는 동작은 파도 만들기라 꽃 만들기인데 어렵지만 여럿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멋지다. 또 시간이 되면 장구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만, 장단이 재미있고 신기하다. 부채춤과 장구는 한국의 문화다. 잘 배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





민속놀이반

교사 이혜원

어릴 때 난 주로 고무줄과 함께, 아니면 다방구, 오징어, 땅따먹기, 사방치기 등의 놀이와 함께 지낸 것 같다. 학교 다녀오면 책가방 던져 놓고 깜깜해지도록 놀던 시절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요즘 나의 아이들을 보면 게임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놀이라는 것은 3~4명은 모여야 제맛인데, 요즘 어딜 가나 3~4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4명쯤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집은 눈 씻고 찾기가 힘들다. 아이들은 그래서 혼자 노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 아니 함께 노는 즐거움을 가져본 적이 많지 않아서 으레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적응해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았다. 딱지를 접어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지켜보는데, 처음에 서툴러서 헛방을 친다. 영락없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다. 어색하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적응해서 서로의 딱지를 따 먹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난 그 아이들 안에서 내 어릴적 따 먹는데 혼신을 다 기울였던 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 놀이에 몰입해

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조차 잊은 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내 어릴적 친구의 모습과 내 모습을 닮았다. 아이들은 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놀아 본 적이 없는, 아니 놀 기회를 안 줘서 버리고 있었다는 듯이 구슬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큰줄넘기, 고무줄놀이, 제기차기 등을 해낸다. 세계 어디를 가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열정과 표정을 숨기기 어렵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몰입하는 표정이 참 사랑스럽다. 박은경 선생님이 들려주신 음악이 들으며 우리는 또다시 논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딱 따라 망까지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빨라'



- ✎ **임수영:** 너무 어렵지만 장구 치는 것은 너무 재미있어요. 부채춤도 너무 예뻐서 좋아요.
- ✎ **김진주:** 장구 치는 것은 너무 신나고 그 소리가 좋아요.
- ✎ **윤예은:** 가장 좋았던 것은 장구 치는 거예요. 재미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최지현:**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부채를 사용해서 좋았고 음악이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좋아요.

- ✎ **노다익:** 민속놀이 중에 구슬치기랑 딱지치기가 게임하는 방법도 쉽고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 ✎ **이재호:** 저는 민속놀이 중에 딱지치기가 좋았어요. 재미있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 ✎ **김규민:** 저는 민속놀이 중에서 구슬치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게임에서 이기면 커다란 왕 구슬을 가질 수 있어 좋았어요
- ✎ **강주희:** 저는 민속놀이 중에서 구슬치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구슬을 많이 따서 모으고 싶어요. 구슬 부딪히는 소리도 좋아요.





종이접기반

교사 송향화

저희 색종이 접기 반에서는 1년 동안 해바라기, 집과 사과, 새, 눈 내리는 풍경, 리스, 하트, 우산, 툴립, 날아가는 새, 카네이션, 개구리, 물고기 접기를 했습니다. 색종이 접기의 주제는 그달의 행사나 그달에 어울리는 자연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색종이 접기를 하기 전에 사물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익힌 다음 종이접기를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사물을 미리 관찰하고, 색종이를 접어서 표현하고, 주변 환경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물을 알아보고 종이를 접어서 표현하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종이접기의 장점이라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마음껏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매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마지막 일 년을 마칠 때와의 생각이 다른 것은 아이들이 언제나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하는

아이의 자신감으로 조금 부족한 옆 친구를 도와주고, 종이접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는 선생님이나 옆 친구의 도움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완성을 해 가며 같은 주제를 함께 접어 가는 아이들 손가락 하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네모난 종이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접어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색종이 접기에 함께 한 학생들과 고조선반 김영식 선생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종이접기 시간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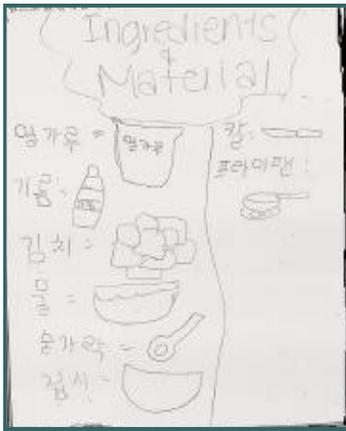
한국요리반

교사 황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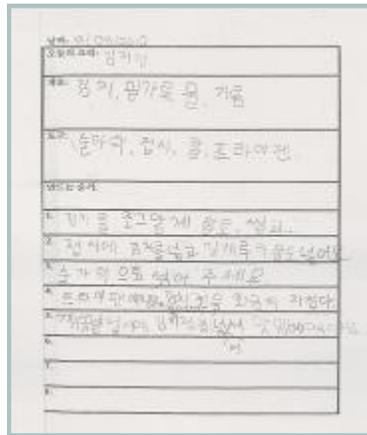
저희 요리반에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한국 음식을 학생들 스스로 요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기본인 밥, 여러 가지 나물들, 달걀 조림, 주먹밥, 생일날 빠질 수 없는 미역국, 잔치 음식의 대표인 잡채, 소풍날의 필수 김밥, 한국인의 대표 간식인 떡볶이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 보며 즐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요리반에서 김치전을 만들어보아요

먼저, 요리 재료는 여기있어요



자, 이 순서로 만들어봐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냠냠

이젠 요리재료로 글짓기를 해보세요.



재료	분량
김치	김치는 맛있어요
물	물은 조금씩 넣어주세요
강	강은 부셔서주세요
프라이팬	프라이팬은 약간이랑 프라이팬이 돼요
생선	생선 기름과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태권도반

우리 태권도반을 소개합니다

😊 임경식: 나는 태권도반에서 좋은 메모리가 있어요. 발차기와 방어하기와 다른 동작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닭싸움이나 다쥐볼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덕분에 두 다리가 많이 튼튼해졌어요. 내 친구 카일의 기합을 하는 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힘든 때도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동작을 계속했어요.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치느라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많이 고맙습니다. 나에게 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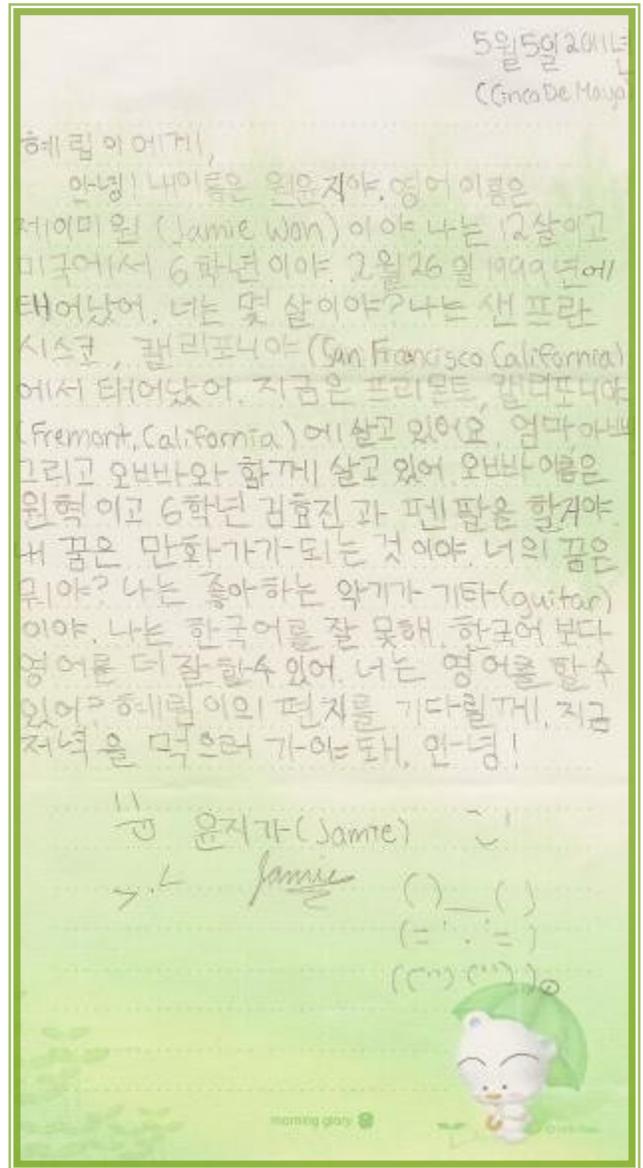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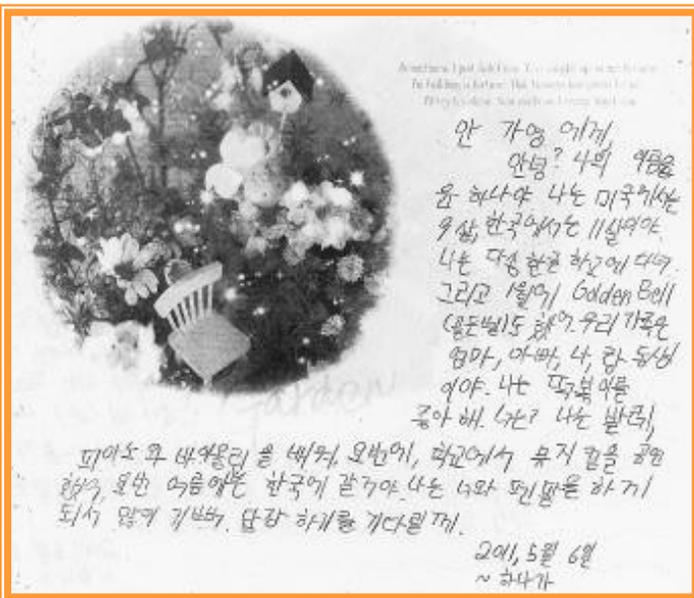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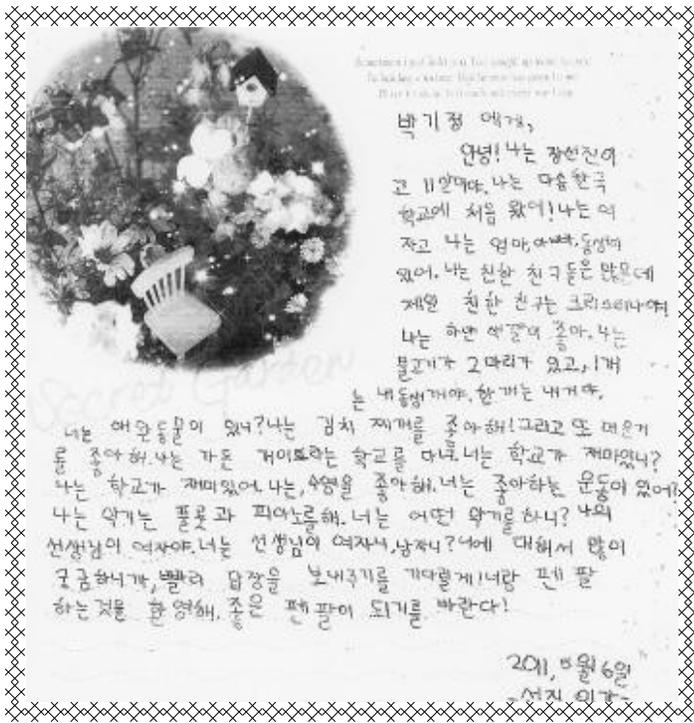
도반은 참 즐거운 특별활동반입니다.

😊 노현우: 태권도반에서 여러 가지의 막기 기술과 발차기를 배웠고 각자의 이름도 알게 되어서 태권도가 더욱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에 나무판을 손이나 발로 깰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가 된 것 같이 느꼈습니다.

😊 송푸른: 우리 태권도반에서는 멋진 자세, 발차기, 격파 등을 배웁니다. 저는 태권도를 1학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서 못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배울 수 있었어요. 작년 종강식 때 보드를 발차기로 힘차게 깨뜨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이팅!

다솜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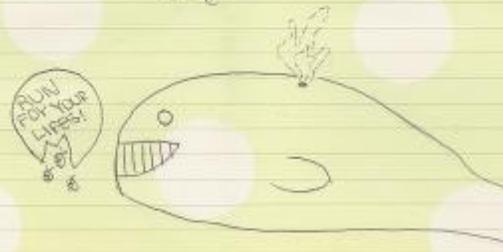
한국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전교생 31명의 법전초등학교(교장:박영수) 학생들과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서신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공통됨으로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과 사는 모습들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다솜 웹사이트 학생방을 통하여 서신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다솜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나윤이야. 나는 6th grade이고, 열두살이야.
 생일은 11월 9일 99년이야. 동생과 언니와 아바랑
 할마. 우리집에 애완 동물이 guinea pig이야. 학교
 친구가 많아. 한국, 미국, 인도, 중국, 과 일본 친구도 있다!
 나는 비올라의 플라이넷을 배워. 그런데 피아노와
 플루트도 할 줄 알아. 나는 미국 비올라 학교 와 한국 학교
 다녀. 부항정도로 수리관과 바다가를 갔어. 봄방학에
 엄마와 동생 생일 파티를 했어. Disneyland도 갔어. 나도
 너를 편지를 기다릴게. 안녕!

Sincerely,
 Nayoun Kim
 김나윤



Hello Kitty

강희연 에게

내 이름은 김유나 이고 나이는 11살이야. 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30분 부터 저녁 7:00 시까지
 다들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프리몬 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야.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Warm Springs Elementary 이야.
 내 편지를 받으면 답장 해주겠니?
 기다릴게

아녀 김유나




김준오 에게

나는
 이아린이야. 나는
 열두살이야. 내
 동생은 일곱 살이야.
 나는 좋아하는
 노래랑 영화는
 없어. 나는 파란
 색이 좋아. 나는
 비빔밥이 좋아. 나는 제일 좋아하는 동생은
 영우야.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었어. 속초와
 부산에 갔었는데 바다에서 조개를 잡았어.
 재미있었어. 너는 면살미니? 답장을 기다릴게

2011년 5월 9일
 이아린



둘쨌들에게,

안녕! 난 김준식이야. 난 13살이요. 라이브 오크라는 학교에
 다니지. 삼개국어를 꽤 알아요. 한국말, 영어, 일본어. 난 너를
 가 되고 싶어. 나한테는 동생과 언니,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많이 있어. Jeremy, Sylvester, Andrew, Toby, Hyun,
 그리고 Jina 야. 여기는 볼보학교 12살 밖에 안되지만, 영
 방학은 무려 2달 정도 되고, 쉬는 날이 진짜 많아. 한국도 좀
 만 미국도 좋아. 너랑 빨리 친구가 되고 싶어. 나한테도 편지
 보내줘! 바이바이!

-김준식-
 from, Tony Kim



다솜편지

안녕! 인영아! 내 이름은 이수현이야. 나는 5학년 4반 학생이야. 나는 심심할 때 무엇을 하든 나는 심심할 때는 책을 읽거나 한국말을 배우고, 나는 미국말로 더 잘해. 나는 동물들을 다 좋아해. 나는 거미고구마를 키워. 하나는 거미고구마고, 하나는 모야. 모이는 낚시하고 거리는 달걀해. 나는 친구 한 명 있어 네 언니 이름은 이지은이야. 너는 동생이야. 언니, 언니 언니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언니를 좋아해? 나는 한국 노래가 좋아해. 나는 우리, *비비* (Bibi) 노래가 제일 좋아해. 영 영의 숙제 *안녕!

이수현

안녕!
내 이름은 노현우야.
나의 가족은 엄마(김지현)아빠
(노민석)와 여동생(노현아)야.
나의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박유식(Park Yu-sik)이야.
나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 전복, 일본 라면과 호박죽이야. 제일 좋아하는
생각은 보라색과 파란색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있고 제일 좋아하는 라이언(라이언)이야. 내 포지션은
그루우야(2nd base)
너의 대답은 기다리게.
2011년 5월 6일
현우 (Jyunwoo K.)

안녕?
할 재하? 나는 엄마 친구 아빠가 있고 형은 임 형식,
그리고 재하야. 나는 11살이야. 내 애완동물은 햄스터, 그 이름은 해비고,
6 마리 닭들이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설렁탕이야. 나의 제
일 친한 친구는 이 성준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하고
농구야. 나는 제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내게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래.
2011, 5월, 6일
김 경식
Joehwa Lim

안녕 귀중은
나의 한국말이 조금 들려: 바리
열 장이야. 나의 가족은 네 명이 있어.
(여름 방학 때, 한국으로 간 거야)
친구가 많아. 나의 대학 *MP3* 같이
네 나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GMA*
The Bird 이야. 나는 나의 제일 좋아하는 게
magy birds 이야!
나의 편지 줄게!
귀중은

아름 기호야. 내 이름은 윤여림이야. 나 내 5월과
 부인이라 살아. 미국에는 집이 크고 차가 많
 난 미국에서 사는 게 좋아. 단교화애가
 나방하에 바다가 에드가고 등 사용개또해이
 너말하에 뭐해어? 난부한친원시럼을 교회
 에서 밧어. 우리 하바가 뮤지컬을 하셨어
 행운을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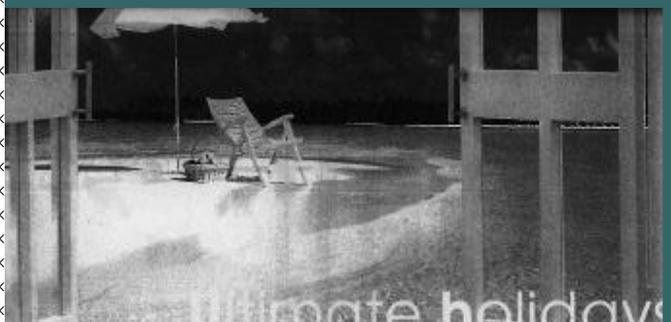
-윤여림
 P.S. 퍼지또보내. 나도 보내게
 P.P.S. 어떤애판동무있어? 난없어.
 P.P.P.S. 크로코



American I got told you thought you were in
 to follow a star. But know he got to be
 to you I know. You still will never say I'm

최연에게,
 안녕, 내 이름은
 양희선이야. 잘지내니?
 나는 2년마다 한국에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계셔.
 나는 광연에게
 한국학교에서 공은벤은
 1등을 했단다. 네 가족은
 얼마, 아바랑, 동생이 있어. 내 동생이름은
 양희준이야. 나는 애완동물은 하너도 없어. 너는
 있니? 있으면, 어떤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미국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과
 파란색이야. 내가 너랑 편지팔을 해서 너무
 좋아. 안녕 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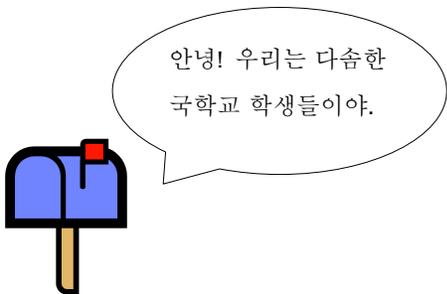
2011 5월 6일
 양희선아가



Dream comes true at the dream place

김도영 세게,
 안녕 내 이름은 송주은이야. 너가 네 편지 잘 받았
 내 생일 은 3000년 7월 12일 이야. 나는 12살 이야
 나는 눈, 수영, 스케이트 보딩 과 서핑을 좋아해.
 동영은은 데코 예술 공인애, 내가 좋아 하는 음식이야
 내 아바는 "드레곤 길들이기", "베가 마인드",
 "아다게스카 2" 과 "슈렉2" 영화 만드는 일을 좋아해.
 우리 학교 한국에서 공부할 것 같아. 김민이 하면 공돈
 뽕 애가 1등으로 기뻐해. 학교 민사와 눈앞에 대해서
 공돈 4개를 줬어. 이리 지이 있었어.

편지봉 위팅이네
 2011년 5월 6일
 -송주은



안녕! 우리는 다숨한
 국학교 학생들이야.



백일장 수상 작품

동상(초등)

제목: 우리가족

이름: 장선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은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지. 우리 가족은 사랑스럽고 멋진 가족이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스런 엄마, 멋진 아빠, 귀염둥이 나의 동생! 첫 번째로 공개합니다. 우리 엄마는 착하고 아름다운 엄마다. 우리 엄마는 음식도 진짜 맛있게 만들어 준다. 다음은 우리 힘세신 아빠다. 우리 아빠는 성격이 좋으시고 마침 멋지기도 하다. 또 노래를 잘 지으신다. 우리 아빠가 나의 동생을 위해서 노래를 많이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동생 장하진은 2008년 7월 1일에 태어났다. 나의 동생은 착하고 재미가 있다. 나의 동생은 사랑스럽다. 내가 학교 끝나고 차에 타면 바로 “언니, 언니!”하고 부른다.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다. 또 힘도 많이 난다. 나의 동생이 나를 위해서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나는 하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우리 동생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진아, 힘내서 빨리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 고맙다! 나의 동생은 세상에서 최고다. 나의 동생도 조금만 더 있으면 언니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하진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동생은 이 세상에 잘 왔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집에 와서 언니가 참 기쁘다. 이제는 언니가 더 노력할게.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착하고 사랑스럽고 지혜가 많은 가족이다.

입상(초등)

제목: 마음의 문

이름: 류정현

류관순, 세종대왕 모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의 문이란 사람의 믿음과 존경을 얻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진실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였

던 조셉이 왕의 믿음을 얻어 이집트의 높은 관리가 되었다. 그 반대로 미국의 높은 장군 베네딕트 아놀드는 나라에 믿음을 저버리고 원수 나라의 장군으로 미국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하나로만은 열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경이 있어야지요.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역시나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벗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우리의 존경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입상(중등)

제목: 오월

이름: 임재순

나는 오월을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 생각은 학교가 거의 끝나는 것이예요. 엄마와 아빠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져요. 숙제가 없고 그냥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은 학교 시험. 학교가 끝날 시간이 오는 것처럼 시험도 와요. 공부 잘해서 이 시험을 잘 보고, 중학교에 배운 것을 잘 배우게 노력해요. 오월에는 우리 수영장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따뜻해질 때 친구들과 같이 수영하는 것이 좋아요. 내 동생들과 같이 수영을 하는 것도 즐겁게 만들 것이예요. 거의 차가운 물에 들어갈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은 내 엄마가 나보다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엄마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오랫동안 물을 주어서 꽃이 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꽃이 엄마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예요. 동물들이 다 나오실 것도 보기 좋아요. 따뜻해져서 동물이 좋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중요한데 내 생각은 학교 끝나서 친구들과 가족과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조교사 소개

저희 다솜에는 두 고등학생이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반을 맡고 있는 임현식군과 신라반 보조교사 및 태권도 반 교사를 맡고 있는 정재봉군입니다. 두 학생은 다솜에서도 열심히 자원 봉사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리더십을 키워가며 자랑스러운 재미한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현식 (Kevin Hyun-Sik Lim) 보조교사: 한영반

임현식 보조교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3년동안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다시 와서 현재 몬타비스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한글에 대한 애착때문에 꾸준한 한글책 독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간 한영반 교사로 3명의 각기 다른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은 임현식 보조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글을 깨치고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임현식 보조교사는 본교에서의 자원봉사 외에도 한미봉사회에서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과 도움이 필요하신 한인 노인들을 위한 방문 봉사, 정기적인 시 공원 청소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한인의 정체성 찾기와 봉사 정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동물보호소에서 개와 고양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으로 동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본교에서는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보조교사로 열심히 봉사해 온 임현식 보조교사에게 자원봉사증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재봉(Jaebong Chung) 보조교사: 신라반 보조교사 및 태권도반 교사

정재봉 보조교사는 현재 Dougherty Valley 고교 11학년에 재학중으로 지난 3년간 본교에서 신라반 및 병아리반 보조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정재봉 보조교사는 리더십이 있고 어린 학생들을 매우 잘 돌봅니다. 작년부터는 특활반인 태권도반을 맡아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은 글쓰기 시간에도 태권도 선생님에 대하여 쓸 정도로 정재봉 보조교사의 태권도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오는 가을 12학년이 되면서 San Ramon School District의 Student Board Representative으로 뽑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자원봉사 보조교사로 열심히 봉사해 온 정재봉 보조교사에게 자원봉사증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공 고

2011년도 가을학기 등록 안내:
재학생의 등록 마감은 **6월**까지로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2011년 다솜한국학교연혁

7월 23-25일	제28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Seattle, WA) (참가 교사: 최미영, 원은경, 정은경, 송향화, 이혜원, 김원구) 최미영 교장 재미한국학교 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됨
9월 10일	2010-2011 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10월 23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가 주최한 제8회 나의꿈 말하기대회(장소: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송푸른 학생 은상 수상
12월 4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총회 및 제16회 교사 사은의 밤 행사에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 교사상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교무 원은경 ● 장기 근속 교사상: 원은경 (교무, 5년 근속), 정은경 (5년 근속), 황현경 (5년 근속)
12월 10일	최미영 교장 실리콘밸리 한인회 '올해의 인물상' 수상
12월 17일	겨울 방학 시작
12월 31일	최미영 교장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12-14대 회장직 마침
1월 21일	겨울방학 후 개학 조선반 정은경 교사 사임, 박은경 교사가 새로 맡음
1월 28일	역사문화 골든벨 개최:장원 (송푸른), 2등 (김준식), 3등 (양희선)
2월 4일	봄 학기 개강 및 설날 잔치
3월 18일	개교 7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5월 8일	제18회 북가주 학생 한글 백일장 및 제11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 - 오후 5시, Golden Gate Park, San Francisco, CA) 제18회 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 초등부 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 장선진 ● 입상: 류정현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중등부 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상: 김나운 ● 장려상: 원윤지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상: 노현아 ● 입상: 서준호
6월 3일	2010-2011년 종강식 및 특활반 발표회



다솜한국학교 2010-2011 학사보고

반명	교사명	1년 개근	1학기 개근	우등	모범
고조선반	김영식선생님		김예린, 노유익, 이재현, 박윤하		
신라반	송향화선생님	서준호, 박채빈	김민주, 김영은, 김윤아, 김주영, 양희준, 이시운, 명세린, 류수현		정인하
고구려반	이혜원선생님	최지현	김규민, 노다익, 티아공주, 티아 진주, 강주희	강주희	
백제반	원은경선생님		김남석, 윤혁, 박가은, 이재원, 임재인	노현아	
발해반	황기현선생님	임경식		장선진	양희선, 노현우, 송푸른
고려반	황현경선생님	이수현	김준식, 김나운, 최학준	원윤지	
조선반	박은경선생님			류정현	원혁
한영반	임현식보조교사				
총		5명	25명	5명	5명

다솜 특별활동을 담당 하시는 선생님들

종이접기반	한국무용반	한국놀이반	한국요리반	태권도반	다솜사랑 편집	다솜웹사 이트
송향화/김영식 선생님	이언주/원은경 선생님	박은경/이혜원 선생님	황현경/황기현 선생님	정재봉 보조교사	임강주 선생님	김원구 선생님





다솜한국학교 2010-2011 학사보고



나의꿈 말하기 대회 (2010년 10월 23일)	은상 (송푸른) 제목: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교내 역사 문화 골든벨 대 회 (2011년 1월 28일)	장원 (송푸른) , 2등 (김준식), 3등 (양희선)
백일장 대회 (2011년 5월 7일)	동상 (장선진), 입상 (류정현)
그림그리기 대회 (2011년 5월 7일)	은상 (김나윤), 장려상 (노현아, 원윤지) 입상 (서준호)
자원봉사상	정재봉(Jaebong Chung)(Dougherty High School 졸업) (신라반 보조교사 및 태권도반 교사), 임현식(Kevin Huyn-Sik Lim) (Monta Vista High School 10학년) (한영반 보조교사)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다솜 행사안내

- 7월 12-14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집중연수회 (San Francisco, CA)
- 7월 14-16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San Francisco, CA)
- 8월 20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집중연수회